

“한국기업 6천개 진출했지만 베트남은 여전히 기회의 땅”

매경 베트남포럼 참가한 최소영 T-PLUS 컨설팅 대표

“도로·공항 등 기초 인프라 부족
불균형 해소 과정에서 역할 찾아야”



“4차 산업혁명의 변화 아래 베트남 역시 디지털화가 급속히 발달하고 있지만 도로·공항 등 기본적 인프라스트

럭처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과 기회가 있습니다.”

최소영 T-PLUS 컨설팅 대표는 지난 5~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열린 ‘매경 베트남포럼’을 참가한 뒤 매일경제 기자와 만나 “베트남에 아직도 충분한 사업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호찌민과 하노이 등 핵심 도시에도 지하철이 없고 도로·공항이 포화 상태일 정도로 베트남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반면 디지털 산업에서는 ‘Aha Move’ 같은 스타트업이 등장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택배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다. 하드웨어는 상대적으로 빈약한데 소프트웨어의 발달은 빠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 기업들이 인프라 건설 사업에 적극 뛰어들어 부족한 베트남의 하드웨어를 확충시켜주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협업을 통해 공생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6000개에 가까운 기업이 진출해 있어 사실상 레드오션이 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반박한 것이다.

최 대표는 베트남의 현 상황 이해와 미래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그는 “베트남의 오토바이 택배



사업은 지하철 등 교통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면 오히려 몰락할 수 있는 만큼 투자 대상을 신중히 골라야 한다. 또 한류 문화가 베트남에 깊이 접목하기 위해서는 한류와 교통, 공항, 여행 숙박 인프라를 연계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대표는 베트남을 저가의 노동력을 이용한 단순한 생산기지뿐만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라보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베트남 기업과 정부 모두 ‘글로벌 밸류체인 합류’를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며 “낮은 인건비를 통해 생산원가를 낮추겠다는 제조사적 관점만 고집하는 것은 현지에서 환영받지 못할뿐더러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매경 베트남포럼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제2의 중국, 판로 확대, 저렴한 인건비’ 등과 같은 표현을 자제하고 상생, 협력, 동반자 등 미래 한·베트남 시대에 필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최 대표는 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기업은 자신과 관련된 개별 사업 기준으로 베트남을 바라보지 말고 연관된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춰 전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다행인 것은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 등 최대 기업들이 부동산, 개발, 유통, 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서 계열사들을 이끄는 형식을 보이고 있어 종합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조언했다. 우재운 기자